

제 1 장

사회제도로서의 국가

1. 국가의 정의와 의무

국가는 그 출현시기와 중요성에 있어서 가족 다음가는 제도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은 가족들이 하나로 결합하여 국가를 이루며, 국가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진다고 말하였다. 오늘날의 정치학은 국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정의 역시 그 근본 뜻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과 유사하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안전과 평화로운 공존을 보장하며 이들의 물질적 윤리적 안녕을 보장하는 법의 지배를 받으며, 어떤 영토 안에 조직되어 그 곳에 영원히 자리잡은, 독립적인 인간들이 하나로 결합한 사회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각 민족의 문화수준에 따라 국가는 인간들의 단체생

활에 여러가지 기능적인 봉사를 수행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므로 국가란 대단히 필요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2. 국가의 생성에 관한 이교도들의 이론

국가의 시작과 생성에 관해서는 수많은 이론들이 각 시대에 따라 발전되었으나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발생 이론

고대에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견유학과 사람들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성 어거스틴(아우구스티노스), 토마스 아퀴나스이며, 근세에 와서는 흄 등이 이 이론을 주장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들 사이의 상호협조의 필요성이 사회를 형성하게 하였으며, 이 사회가 도시로(πόλις) 발전하였다. 플라톤은 이 도시를 국가(πολιτεία)라고 불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란, 인간들의 행복해지려는 속성으로 인하여 생성되었으며, 인간은 국가를 통해서만 자신들의 행복을 얻을 수 있으며, 국가의 제일차적인 관심은 국민들에게 덕있는 삶을 가르치는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견해이다.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국가란, 인간의 속성이 빚어낸 산물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므로 이 인간의 속성이 사회를 조직하였으며, 이렇게 조직된 사회 즉 국가는 그 목적을 인간의 번영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플라톤과 견해를 같이 하였다.

서방교회의 위대한 그리스도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노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도 국가의 자연발생 이론을 받아들였다.

아우구스티노스는 첫 인간들의 타락의 결과로 국가가 생성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인간의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인간세계에는 두 개의 사회가 형성되었는데, 하나는 구원받게 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선택된 사람들로 구성된 하느님의 왕국이며, 다른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두 왕국은 같은 장소에 공존하고 있으며 외면적으로는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엄밀하게 분리된 아주 다른 두 개의 국가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왕국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지만,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은 원수처럼 서로를 적대시하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사회를 이루려는 속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도시(국가)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달리 국가의 자연발생 이론에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조합하여 국가의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법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법 위에는 하느님의 법이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모든 법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 계약의 이론

계약이론의 주창자는 에피큐로스(기원전 342~270)이었다. 그는 국가(사회)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공동의 계약을 맺은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국가란 인간들이 국가를 형성하면 이로울 것이라는 계산하에서 세운 것이라고 가르쳤다.

에피큐로스의 이론은 그 후 오랫동안 잊혀진 채 있다가 근세에 들어와 다시 여러가지 변형된 형태로 발전되었다. 즉, 인간이란 천성이 이기주의

자이프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며,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간의 성향은 인류 초기 시대에 있어서 끊임없는 전쟁을 유발하였으며, 그 결과 인간은 항상 불안한 상태를 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러한 이기주의적 성향 이외에도 이성적인 면이 있으며, 이 이성적인 면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보존의 방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그리하여 이 이성의 도움으로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자는 상호계약을 맺게 되었다. 이 계약에서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영국의 록크는 이 홉스의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 국가의 권한을 입법, 사법, 행정의 세 분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몽테스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주장하였으며,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대중의 의사가 반영되어지는 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3) 폭력의 이론

이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이나 몇몇으로 구성된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하고 폭력으로 이 법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함으로써 국가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소피스트들이었으며, 독재자들과 폭군들에 의한 국가, 또는 전체주의 국가들, 즉 파시스트, 나치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이 형태의 국가라고 볼 수 있다.

3.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생성된 국가

(1) 그리스도교 이전의 견해들

고대의 많은 백성들이 신의 섭리에 의해 국가가 생겨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에집트인들은 파라오를 신으로 숭상하였다. 바빌로니아인들도 왕은 신과 동등하다고 믿고 있었다. 페르시아인들도 왕을